

법률상식

— 김진 (경우회 재정 관리처장)

공동상속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한 다음 제3자에게 권리이전한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판결요지]  
진정상속인이 참칭(僭稱)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정○○가 1971. 3. 7. 사망하여 정○○와 원고 및 1심 공동피고 등이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1심 공동피고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6.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원고가 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심 공동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6.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01. 8. 29. 1심 공동피고 와 사이의 근저당설장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초과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시간 소는 1심 공동피고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었던 1993. 4. 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 12. 11. 제기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불법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최근 일련의 폭력시위 양태가 경찰관을 향해 사제 화염방사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뽕족한 죽봉으로 눈을 찌르고, 물을 끓여붓는 등 전쟁을 방불케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국가공권력이 힘없이 무너지고, 선배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 민주주의 근간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중앙일간지에 <‘불법 폭력시위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지난 8월 19일과 20일 서울역사에서 사진전을 개최함과 있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명부에 기입(본인은 물론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 바람)후 절취하여 경우회로 우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씨 선 -----

| 연번 | 성명 | 주소 | 서명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신당동 171번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우 100-821

## “북한 핵 폐기 및 간첩단 사건 수사 촉구” 국민대회



재향경우회를 비롯한 안보단체 회원 3천여명은 지난 11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공원에서 「북한 핵 폐기 촉구, 간첩단 사건 확대수사 촉구」 국민대회를 갖고 애국 시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북한 핵 폐기완료시까지 UN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국정원과 검찰이 최근 간첩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종로공원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 나라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넋 추모

### - 전사경찰관 전국 합동위령제 거행 -



「2006년도 전사경찰관 전국 합동위령제」가 문학동 참전경찰화장을 비롯한 전국의 참전경찰회원, 최석원 前 경우회장, 지역경찰관, 내외귀빈, 유족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 지리산 뱀사골 경찰 충혼각에서 거행되어 호국 영령들의 넋을 추모했다.  
이날 위령제는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서 전사경찰관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조총발사, 헌화 및 헌화분향의 순서로 이어졌고, 진하게 피어나는 향내음과 더불어 조국을 위해 산화한 이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명복을 빌어 주는 뜻 깊은 행사로 빛이 났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학동 참전경찰화장은 추념사를 통해 『이곳에 봉안된 7,344위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두손 모아 빈다』면서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8.15 광복과 6.25 동란을 거치는 격동의 근

대사를 거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원, 더불어 우리 순국선열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회장은 『북측이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지난 7월 미사일을 발사해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지난 10월에는 핵실험까지 감행했다』고 전제하고 『이와 관련 세계평화기구인 UN에서도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지만 반성은 고사하고 또 다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 전체 7천만이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도 지혜를 모아 대비책을 강구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곳 위령탑의 재건과 관련 문 회장은 금년 이맘때 즈음 완료한다는 계획이 여러 가지 난제로 아직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의 충혼

탑과 전사관을 탄생시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뜻 깊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기행문

## 동북공정 속에 백두산을 오르다



한반도에서 태어난 분은 누구나 백두산에 한번 오르기를 원한다. 그 백두산을 백의민족이 살고 있는 우리 땅에서 오르지 못하고, 중국 연변 쪽에서 오른다. 백두산을 중국인들은 장백산이라고 부른다.  
백두산의 관광을 위해 서틀버스 운행 구간을 지나, 산악으로 오르는 좌차 운행 구간을 차량에 의해 중국 쪽 천문봉 턱밑까지 올랐다. 바라다 보이는 정상을 누구나 오를 수 있도록 했다. 단화를 신고 가도 충분하게 오를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훼손되었다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빗발이 하나 돌 떨어지더니 천지는 갈하는 안개 속에 잡혀 신비롭게 보이나, 주변 산 봉오리는 구름에 숨겨졌다. 20억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는 천지 건너 장군봉 멀리 구름 속을 더듬을 수 밖에 없다.  
외교관을 상실했을 때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나라가 간도 협약을 맺어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은 만주에서 철도와 광산의 이권을 보장 받으니, 우리 백성이 살고 있던 간도가 중국 땅이 되었다. 그리고 6.25때 중공군의 참전으로 정권을 유지한

우리는 영원한 경찰 同志

- 서울서초경우회, 모범경찰관 해외연수비 1,000만원 전달 -

고문인 김재덕 변호사가 600만원을, 서초 경우회가 300만원을, 그리고 김창웅 자문위원장이 100만원을 각각 기탁해 총 1,000만원을 조성함으로써 가능케 된 것이다.  
이번 성금 전달에 대해 차진복 회장은 『평소 격무에 시달리는 현직 후배들을 도울 길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김재덕 고문과 김창웅 자문위원장, 그리고 여러 임원들과 뜻을 모은 것인데, 우리들의 정성이 보람된 일에 사용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경우회의 정체성에 걸맞게 현직 후배들을 지원하는 한편 경우회 및 경찰발전,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온 현직 경찰관 17명은 『선배 경우님들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면서 『더욱 열심히 근무하라는 격려로 알고 많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쪽은 저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1962년 김일성과 주은래가 변경조약을 맺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해 간도협약을 추진한 꼴이 되었다. 백두산정계에 동위압록 서위두만이란 역사적 기록을 거둔도 못했겠지.  
백두산 정상에서 내려와 중식을 하고, 송하강의 원류 68m의 낙차로 장대함을 자랑하는 장백폭포의 물줄기를 옆으로 끼고 올라 콘크리트로 만든 달문 계단을 통해 다시 천지로 향했다. 고회를 넘은 나이에도 천지 물을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오르고 또 올라 드디어 장백폭포 위에 광활하게 자리한 천지에 이르렀다. 오전 천문봉에서 천지를 내려다 볼 수밖에 없었으나 천지에 손을 담고도 구름에서 나온 주변 봉우리를 전부 볼 수 있다. 우리의 땅 백두산의 제일 높은 2,750m의 장군봉이 선명하게 마주 보인다.  
백두산의 기후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니, 언제 구름이 왔는지 소낙비가 쏟아진다. 잔잔한 천지 수면에 떨어지는 빗줄기는 중국을 거쳐 천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일행의 마음의 눈물인가? 그 비도 잠깐이고, 따사로운 햇볕을 쬐어준다. 항일 전적지 탐사 지원단의 성악가 임 박사는 영봉에서 맞은 순간적 감정의 발로로 애국가를 우렁차게 불렀다. 노래가 끝나니 모든 관광객이 박수로 감사를 표했다. 중국의 공안원도 감동적이고도 우렁찬 노래에 박수로 답한다.  
백두산에 한 번 와 천지와 주변 산 봉오리를 다 보는 분은 북 반은 분이란 말이 있다. 우리는 빗발이 휘날리는 날에 와서 안개 걸리는 천지, 구름에 잠긴 주변 산 봉오리, 구름 속에서 나온 웅장한

장군봉, 비 맞는 천지, 비 온 후 햇볕을 쬐어주는 잔잔한 천지를 하루에 다 보고, 우렁찬 애국가를 천지에서 들었다.  
서기 어린 천지 물은 온 누리의 생명수/ 백두의 높은 위용 흥인인간 펼칠 기상/ 단군 역사 스며드는 드넓은 불함백산(不咸白山)/ 압록 도문 물길 따라 영원한 삶의 터전... 이라고 혼자 웅얼거려 본다.  
우리 땅에서 난 사람은 누구나 천하의 명산 금강산과 민족의 발상지 백두산, 남쪽에 우뚝 솟은 한라산을 골고루 다녀 보고 싶어 한다. 그 백두산을 중국의 영토를 거쳐 가려면 하는가.  
평범한 대한민국 백성이 같은 땅 한반도 내에서 오르지 못하는 것도 기득권을 영원하게 지키려는 자들이 동족과 백성에 봉사하기보다는 통제하려고만 하는 술수 때문이 아닌가.  
고조선, 고구려, 발해시대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남북이 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곳인데, 중국이 동북 공정 운운하며, 백두산 주변도 자기들의 지방정권이 있었다는 식의 발상으로 역사와 영토를 욕심내는 것은 가히 가관이다.  
티베트를 점령해 자기들의 영토로 확장 저들은 백두산마저 저들의 산이라고 할 것인가. 중국에 감사해 백두산 영봉 일부도 중국에 할애한 정권을 이은자들이 과연 민족 영산의 자연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산정 가까이까지 차도를 낸,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백두산 북벽을 다녀 온 자의 부질없는 안타까움이다.  
욕심의 화신 인간들은 더 이상 불함백산 백두산을 훼손하지 말라! 백두산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 경우문제회 총회 개최

‘대한민국경우문제회’에서 <파도와 등대>를 출간한지 여언 6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고 나는 화살과 같다고 하더니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과 상건례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상건례를 겸하여 회장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하에서 <파도와 등대>를 이끌어 오신 박재식 전임 회장님과 전운찬 현 회장님의 뒤를 이어 제3대 회장님을 선출하여 새로운 진용을 갖추어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파도와 등대> 제6집 자축연 및 회장 선출

• 일시 : 2006. 11. 14. 11:30~15:00(11:30~12:40은 중식시간임으로 미리 오셔서 점심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서울 청계천로 입구 31빌딩 스카이31 하이미트뷰페 (☎ 02-739-4618~9)  
※ 문의사항은 간사 노종평의 전화 001-745-777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